

“투수 왕국 타이거즈 ‘루키 계보’ 잇겠다”

김태형·나연우·최건희·양수호
KIA 신예 4인방 활약 예고



KIA 타이거즈의 신인 투수 김태형(왼쪽부터), 나연우, 최건희, 양수호가 손으로 '2025'를 표현하며 새 시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4인 4색’ KIA 타이거즈 루키 계보 잇기가 펼쳐진다.

KIA는 매년 마운드에 ‘셋별’이 등장하면서 투수 왕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마무리 정해영을 시작으로 좌완 이의리와 윤영철이 선발 자리를 차지했고, 최지민과 박도규가 놀라운 성장세를 필승조로 자리했다.

KIA는 올 시즌에도 신예 선수들의 경쟁과 활약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월 일본 마무리캠프에서 프로 세계를 미리 경험한 김태형, 양수호, 최건희, 나연우 등 우완 4인방도 ‘루키 계보’ 잇기에 나선다.

1라운드 지명을 받아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덕수고 출신 김태형은 마무리캠프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150km의 빠른 공과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등의 변화구를 보유한 그는 신인답지 않은 여유와 멘탈을 보여주면서 눈길을 끌었다.

윤영철의 신인 때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는 윤영철을 보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호흡으로 프로 무대를 두드릴 계획이다.

김태형은 “모든 게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있다. 프로는 짧고, 굵게 필요한 것들을 한다. 휴식 때도 형들이 개인 운동하니까 같이 하게 된다”며 “윤영철 선배를 많이 보고 배우고 싶다. 너무 잘하고 있고, (덕수고 동기) 정현우가 야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많이 따라다니면서 배우라고 했다”고 윤영철 바라기를 예고했다.

공주고 출신의 양수호에게는 학교 2년 선배 박도규와 정해영이라는 ‘롤모델’이 있다.

양수호는 “최고 153km의 빠른 공으로 승부하는

게 나의 강점이다.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구사한다. 캠프에서 슬라이더 연습을 많이 했다. 슬라이더를 던지고 싶을 때 던질 수 있게, 스트라이크로 던지고 싶을 때 던지고 빼고 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며 “(박도규는) 자기 운동 열심히 하던 선배다. 1군에서 뛰는 것 보면 신기하다. 도규형 보고 많이 배워서 빨리 1군 무대에 서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도규형이 형들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조언해줬다. 정해영 선배님 변화구 던지는 것과 마무리 투수나

까 멘탈 같은 것 많이 배우고 싶다”고 언급했다.

강릉영동대 출신의 최건희는 ‘군필’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야구에 집중할 생각이다.

최건희는 “20살 때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다. 고등학교 때 애매한 선수라고 생각해서 대학을 갔는데, 당시 잘하는 선수도 많고 야구부 인원이 상당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군대를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입대를 했다. 군필이기 때문에 야구만 열심히 하면 된다”며 “강한 불을 쬐는 이닝

에 계속 던질 수 있다. 대학 때도 거의 불펜으로만 나갔다”고 불펜 도전을 이야기했다.

그는 또 “체인지업이 자신있다. 변화구 제구를 신경 쓰겠다. 대학 때 프로와 연습경기 해보면 확실히 물리는 공은 맞는다.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변화구를 스트라이크 넣을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취준생 출신의 나연우는 좋은 구위와 커브로 프로 무대에 도전한다. 지난 마무리캠프는 자신의 무기를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포크볼 완성

을 목표로 삼았던 나연우는 ‘포크볼 달인’ 정재훈 투수 코치에게 직접 비법을 묻고 배울 수 있었다.

나연우는 “구위가 좋다고 생각한다. 커브 브레이크도 장점이 있다.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을 던지는데 캠프에서 포크볼을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프로 1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커맨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몸 관리 잘하면서 내가 던질 수 있는 구종을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전남, 승적 마지막 퍼즐 우루과이 출신 알베르티 영입

전남드래프트가 우루과이 출신 알베르티(27·MF·사진)로 승적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전남이 중원 강화를 위해 ‘우루과이 하드웨어’ 호세 알베르티(Jose Alberti Loyarte)를 영입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그는 많은 활동량과 승부 근성을 바탕으로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전방으로 연결하는 패스 속도와 퀄리티도 뛰어나 빌드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알베르티는 2016년 CA 후벤투에서 데뷔해 2024년 클럽 나시오날까지 9년간 우루과이 1부에서 활약하며, 통산 260경기나 나와 18골 27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발디비아와 전천후 미드필더 박태용 등과 중원 싸움에 나서게 된다.

알베르티는 “처음 한국에 오게 됐는데, 느낌이 너무 좋다. 전남의 올해 목표인 K리그1 승격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선수단 재정비를 마친 전남은 광양에서의 1차 동계 훈련에 이어 15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소화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벽돌 기술자가 뿔 팀에 손흥민 투입하고 ‘진땀승’

토트넘, FA컵 3R 5부리그 램프스에 연장전 끝 3-0 승

토트넘이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3라운드에서 5부리그 팀을 상대로 ‘캡틴’ 손흥민까지 활용한 끝에 연장전에서 가까스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램프스의 더 램프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4-2025 FA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5부리그에 해당하는 내셔널리그 소속 램프스와 전·후반을 0-0으로 비긴 뒤 이어진 연장전에서 3골이 터지며 3-0으로 이겼다.

토트넘은 이번 라운드에서 5부 팀과 만나는 행운의 대진을 받고도 출전 끝에 연장전까지 끌려가 주전 선수들을 모두 활용하면서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주장 손흥민도 벤치에서 90분을 보낸 뒤 연장전에 투입하면서 티모 베르너 대신 투입돼 끝날 때까지 뛰었다.

손흥민은 팀이 1-0으로 앞선 연장 후반 2분 데얀 콜루세브스키의 추가 골 때 도움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공식전 7번째 도움을 올렸다. EPL에서의 5골 6도움을 포함해 이번 시즌 손흥민의 전체 공격 포인트는 14개(7골 7도움)로 늘었다.

램프스는 잉글랜드에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리그 중 가장 낮은 단계의 내셔널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24개 팀 중 16위에 머문 팀이다. 샌드위치 업체 사장, 벽돌 기술자, 금융 상담사, 아카데미 코치 등 본업이 따로 있는 ‘파트 타임’ 선수들이 즐비하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런 팀을 상대로 주전급 선수를 내보내고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약 4000석 규모의 경기장은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거리가 무척 가깝고, 인조 잔디라 토트넘으로선 경기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경기 시작 직전에 램프스 골키퍼가 서 있던 쪽 골대의 크로스바 쪽 그물에 구멍이 난 하자가 발견돼 시작이 약간 지연되기도 했다.

본업이 ‘건물 측량사’인 램프스의 자스 싱 골키퍼가 직접 고쳐보려다가 여의치 않자 다른 선수가 동료의 목발을 타고 올라가 테이프로 그물을 크로스바와 연결하는 보기 드문 장면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골대 수리(?)에 성공한 램프스 측면 공격수 베크-라이 에노루가 경기 시작 약 30초 만에 드리블로 페널티 지역 왼쪽을 돌파해 슈팅을 날려 경기 초반 안팎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반 32분 양 팀을 통틀어 첫 유효 슈팅인 토트넘 제임스 매디슨의 오른발 중거리 슈트 싱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등 전반은 0-0으로 마쳤다. 후반에도 램프스 수비진의 육탄 방어를 좀처럼 뚫지 못한 토트넘은 연장전을 피하지 못했다.

연장전엔 손흥민과 콜루세브스키, 제드 스펠스까지 교체 카드로 가동하면서 토트넘이 주도권을



12일(현지시간) 영국 램프스의 더 램프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4-2025 FA컵 3라운드 램프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잡아나갔고, ‘101분’ 만에 램프스의 자책골로 균형이 깨졌다.

손흥민이 중원에서 얻어낸 프리킥 때 키커로 나선 페드로 포로가 페널티 지역 안으로 낮게 찰러 쏘고, 존슨의 크로스에 이은 골대 앞 혼전에서 템

위스 미드필더 네이션 치쿠나의 발을 맞고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연장 후반 2분엔 손흥민의 낮은 크로스에 이은 콜루세브스키의 추가골이 나왔고, 연장 후반 13분 존슨의 자책포도 터졌다.

/연합뉴스

PSG 이강인, 세 번째 도움... 2-1 승리 견인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리그에서 시즌 세 번째 도움을 작성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강인은 13일 열린 생테티엔과의 2024-2025 리그1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PSG의 오른쪽 미드필더로 선발로 출전, 전반 13분 터진 우스만 데벨레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다.

이강인의 이번 시즌 3번째 도움이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공격 포인트 9개(6골 3도움)를 쌓았다. 특히 지난달 19일 AS 모나코와의 16라운드에서 이어 리그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했다.

모나코전 이후 한 달 가까이 리그에선 휴식기를

보내며 그사이 쿠프 드 프랑스(프랑스컵)와 트로페 샹피옹(프랑스 슈퍼컵) 경기를 치른 PSG는 모처럼 나선 리그 경기에서 데벨레가 두 골을 책임진 데 힘입어 2-1로 이겼다.

리그 17경기 무패(13승 4무)를 이어간 PSG는 선두(승점 43)를 달렸다.

경기 시작 13분 만에 PSG는 이강인이 발판을 놓은 데벨레의 득점포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강인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공을 밀어줬고, 데벨레가 그대로 페널티 지역 안까지 몰고 들어가 왼발 마무리로 골문을 열었다.

PSG는 전반 23분 페널티킥으로 격차를 벌였다. 생테티엔 폴레 레오 페트로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

티킥이 선언됐고, 키커로 나선 데벨레가 이번엔 오른발로 골 그물을 흔들며 일찌감치 멀티골을 폭발했다. 후반 들어서는 PSG의 공세가 전반보다는 소강상태를 보인 가운데 생테티엔은 후반 19분 주리코 다비타슈빌리가 페널티 아크 뒤편 프리킥으로 만회골을 만들어내 따라붙었다.

이후 생테티엔의 공격적 움직임이 한결 활발해지면서 PSG는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공격에선 추가 골 기회도 살리지 못했으나 한 골 차 리드를 지켜냈다.

이강인은 폴타임을 소화했다.

이강인이 PSG 공식전에서 폴타임을 뒀던 건 지난달 11일 잘츠부르크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패이즈 경기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리그에선 지난해 11월 10일 양재와의 11라운드 이후 2개월여 만이었다.

/연합뉴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왼쪽)이 13일(현지시간) 열린 생테티엔과의 2024-2025 리그1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와 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